‘전생에 나라 구하기’ 믿음

(예레미야 50:1~46)

1.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3.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전생에 나라 구하기’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전생에 나라 구하기’ 믿음

한 10여 년 전부터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는 말이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주로 획기적인 성공이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로또가 당첨되었다든지 금수저 부모를 두었다든지, 입이 딱 벌어지는 미남 미녀로 태어났거나 그런 사람을 애인이나 배우자로 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말부부를 안쓰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가 되어서 주말부부로 살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덜 싸우는 만큼 좋은 금슬을 유지하며 이혼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생’이란 공덕과 죄악이 다음 생의 길흉화복으로 이어진다는 불교의 윤회설에 근거를 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윤회를 믿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생과 관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찾다 혹은 추구하다(seek).'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다'라는 말의 구하다는 '구원하다(save)'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한자에서 구할 구(求)자와 구원할 구(救)자가 발음이 똑같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믿음은 하나님 나라 구하기입니다. 믿음 자체 안에는 나라를 구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전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윤회나 전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삶이 전생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하시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엘리야에 대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변화산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전생의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말 그대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구해서 천국에 간 셈입니다. 물론 그 일이 모세의 힘으로 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삶을 살았던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진 믿음 안에 나라를 구하는 일이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엘리야 또한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진 북 왕국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몸부림쳤던 선지자였으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구해집니다. 복음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구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가 지금 이 지구 위에서 멸종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멸종 위기의 하늘나라를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지구 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전생에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방 10개국에 대한 멸망 예언 중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길게 예언되는 가운데 선민의 회복이 예언됩니다. 선민을 망하게 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민이 회복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합당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중이 특별히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선민의 나라 유다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을 선민답게 하는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번제의 생활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번제가 이루어지던 성전을 파괴한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벨론에 대한 분량 자체가 남다르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었던 백성들이 살아가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가 선민으로써 특별히 존재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 민족과도 다른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보존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선민 나라의 존재 이유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 존재 이유였습니다. 주의 기도가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직접적인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선민들의 삶의 기둥 또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살 땅과 국경을 정해주신 이유도 그 경계 안에서 마음 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통치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써 온 세상 삼라만상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섭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지구에서 멸종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지구에서 멸종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나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의 신으로써 섬긴다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멸종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나라를 깔아뭉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이 있다면 돈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럴 때에 돈 문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문제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됩니다.

선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애국자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이러한 애국자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며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애국심을 앞세워서 예레미야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애국심을 발동시켜서 바벨론에 저항하고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국자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행동이 선민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선민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다 나라 백성이기 이전에 선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하늘에 대한 애국심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추구함을 통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결국 이러한 본연의 목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조국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집중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몸 하나가 있사오니 십자가에 걸어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대단한 일을 꿈꾸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포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구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식민지 아래의 조국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애국심의 발현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인격적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왕으로써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국 사랑이기도 합니다. 선민은 이 땅에서는 자기 나라가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조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 등으로 파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견 나와서 입은 유니폼이 검은색이면 흑인이고 하얀색이면 백인이고 누런색이면 황인이라고 할 뿐입니다. 선민이라는 자각을 갖게 되면 모두 천국을 조국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파견 나온 자들로써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5,500만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멸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파견 나온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조국인 하늘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왕이 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요새 일본이 한국을 계속 도발합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혐오심과 경계심을 기반에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보자면 아베의 마음과 일본 열도의 마음은 한국의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한국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장단에 맞춰서 함께 놀아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군을 이루어 남 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을 앞에 두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발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그 현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선지자 야하시엘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성가대를 앞세워 적들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적들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 자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금식 중에도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상번제를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에 대해서 마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선적인 현실로써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눈앞에 놓인 어떠한 사실들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구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본이 도발하든 중국이 도발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당장 전쟁이 나서 핵공격을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이전에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앞에 도발하는 이웃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멸종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나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한 환경에 대해 죽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내 몸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조차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옆집은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불상 앞에서 절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똑같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상번제가 드려지는 성전에 모여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녀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우기듯이 주장하고 외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적인 현실이 되실 것이고 자녀 문제는 어느덧 하나님의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허리는 창에 찔리셨고, 살갗은 채찍에 맞아 찢어지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한다면 삶에서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현실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려나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인 천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천국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열두 척의 배로 조선을 구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최고이자 최선이며,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위해서도 최고이자 최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느끼기 위한 믿음 하나를 가졌을 뿐인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입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해나가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를 드실 수도 있고 병을 고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나라를 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동남아에 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열두 척의 배 대신에 십자가를 붙잡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계속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우기듯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교의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써 확인하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자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서 우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최우선의 현실임을 느끼게 하시고 이 땅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